

일본 경제 동향_2018년 4월

(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책)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	2
2. 무역수지흑자 크게 확대	6
3. 엔고·저주가·저금리	8
4. 해외직접투자 큰 폭 감소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1
1.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	11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3
1. 대일 무역적자폭 2개월 연속 확대	13
2. 1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15
V. 참고 자료	17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7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6	2017	2017				2018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경기 동향지수(일치 지수, 2010=100)	-	-	-	-	-	-	-	114.9	115.6	-
GDP증가율(연율,%)	0.9	1.7	1.2	2.5	2.2	1.6p)	-	-	-	-
국내 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83.1	86.2	24.0	18.9	21.2	21.6p)	-	-	-
	공공투자	26.9	27.7	7.2	5.5	6.6	7.8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55.7	55.3	20.8	10.3	11.5	13.1	-	4.9	3.4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3	0.5	0.3	0.2	-	-	-0.2	0.1	-
	전년동기비	△0.3	0.5	0.2	0.4	-	-	0.9	0.9	-
실업률(%)	3.1	2.8	2.9	2.9	2.8	-	-	2.4	2.5	-
수출(조엔)	70.0	78.3	19.0	18.8	19.6	20.9	6.7	6.1	6.5	7.4
수입(조엔)	66.0	75.4	18.6	18.1	18.4	20.1	6.7	7.0	6.5	6.6
무역수지(조엔)	4.1	2.9	0.4	0.7	1.2	0.8	-0.02	-0.9	0.03	0.8
경상수지(조엔)	21.1	22.0	5.8	4.6	7.0	4.3	-	0.6	2.1	-
환율	달러	108.8	112.1	113.6	111.1	111.0	113.0	108.1	110.8	107.8
	원화(100엔)	1,068	1,009	1,015.7	1,020	1,020.3	1,001	990	961	998
금리(10년물,%)	△0.051	0.052	0.072	0.044	0.046	0.052	0.059	0.074	0.063	0.040
주가(닛케이)	16,920	20,209	19,241	19,503	19,880	22,187	22,367	23,712	21,992	21,396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

- '18.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5.6으로 전월비 0.7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

- '18.2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7,973억 엔 흑자

- '18.3월 수출은 7조 3,819억 엔, 수입은 6조 5,845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8.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6.0 엔으로 전월비 1.7%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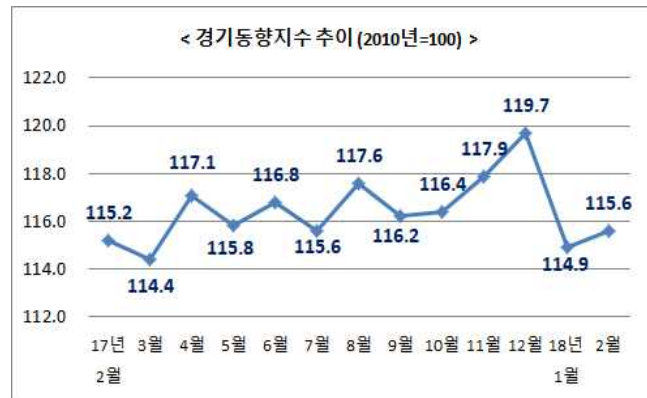
* '18.3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11원으로 전월비 1.3% 원저·엔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음
 -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설비투자과 생산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기업수익과 기업들의 업황판단도 개선되고 있음
 - 고용사정도 착실히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8.2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도 전월보다 0.7p 상승한 115.6으로 2개월 만에 개선됨
 - 일본내각부의 기조판단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를 유지
 - 수출용기계의 생산과 출하가 회복되고 생산지수 및 소매판매가 상승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한 개인소비의 견조한 추이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8년 1분기(1-3월)에는 추위 등 기후불순과 에너지 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의 감소 등 내수의 리스크에 더하여 엔고와 보호주의 대두 등이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전망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5.8로 3개월만에 상승

<GDP>

- 일본 내각부가 3월 8일 발표한 2017년 4분기(10-12월) GDP개정치(2차 속보치)는 실질 전기비 0.4% 증가, 연율환산으로는 1.6% 증가함
- 반도체 관련 및 자동차투자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견조하게 추이함에 따라, 1차 속보치(연율 0.5%)를 크게 상회한 것이 상향수정의 주된 요인임
 - 스마트폰 제조용 반도체 등의 증산투자가 활발했던 외에 공장의 자동화에 사용되는 공장자동화 기기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움직임도 확대됨
 - 원재료 등의 재고누증이 증가한 점도 상향수정의 요인으로 작용함
 - 개인소비와 수출은 각각 전년비 0.5%, 2.5%로 1차 속보치와 같음
- 그리고 2017년 실질GDP는 전년비 1.7% 증가로 6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
 - 내수와 외수 모두 GDP성장에 플러스 기여를 함
- 도레이경영연구소에 의하면 2018년 1-3월기의 GDP성장율은 수출과 소비의 둔화로 2017년 10-12월의 연율 0.4%보다 낮은 0.2%(전기비 0.1%)를 기록할 전망
-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4월의 민간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2018년도의 GDP성장율은 1.25%로 2017년도의 1.8%보다 낮아질 전망
 - 2019년도에도 GDP성장율이 0.8%-0.9%로 2018년보다 낮아질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6	2017	2016				2017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7	0.3	0.2	0.3	0.5	0.6	0.6	0.4p)
전기비연율	0.9	1.7	2.7	1.3	0.9	1.1	1.9	2.4	2.4	1.6p)
전년동기비			0.6	0.7	0.9	1.5	1.4	1.5	1.9	2.0p)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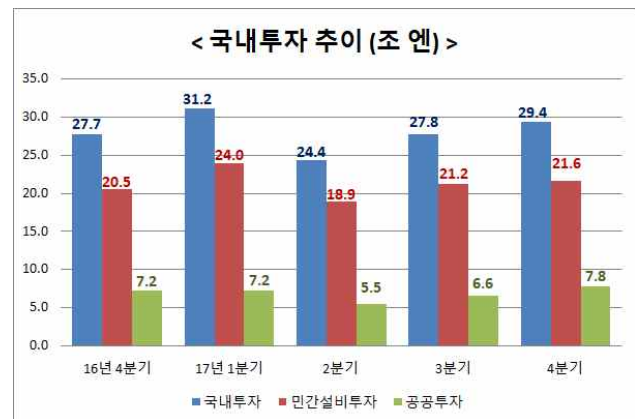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4분기 국내투자, GDP의 20.5%

- '17.4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5.7% 증가한 29.4조 엔으로 GDP의 20.5%

□ (민간설비투자)

- '17.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1.6조 엔, 국내투자의 73.5%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8년 3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8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판단은 부족감이 보임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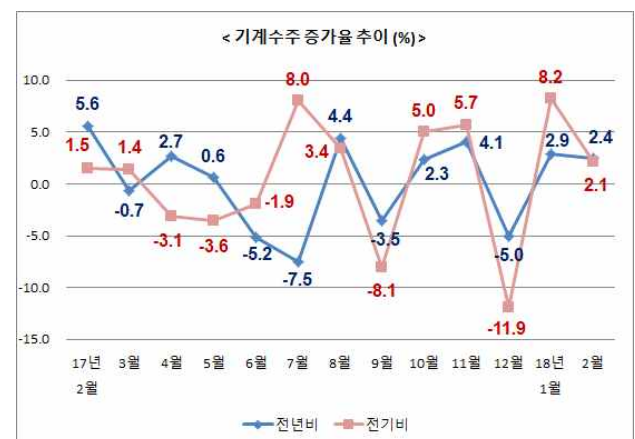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8.2월 기계 수주(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수)는 엔고하에서도 전월비 2.1% 증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및 전기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

□ (공공투자)

- '17.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7.8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6.5%를 차지
- 공공투자는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18.3월의 공공 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7.0% 증가한 반면 '18.2월의 공공 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2.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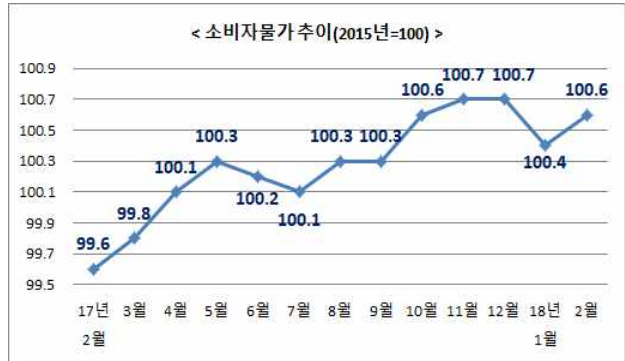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도 있어 공공투자는 견조세를 유지할 전망

<소비자물가>

□ '18.2월 소비자물가 상승

- '18.2월 소비자 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6(2015년=100)으로 전월비 0.1%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9% 상승,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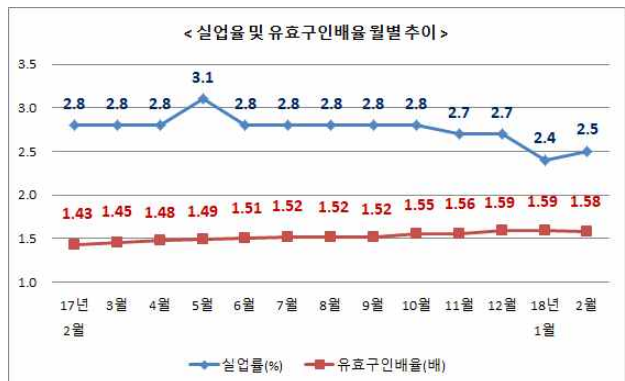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는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8.2월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높은 2.5%로 9개월만에 상승
- 고용사정 개선을 배경으로 자발적 이직자 수와 신규 구직자 수가 증가
- 완전실업자 수는 169만 명으로 전월보다 9만 명 감소한 한편, 취업자 수는 6,64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



자료 : 후생노동성

- '18.2월 유효구인배율도 1.58배로 5년 5개월만에 감소
- 그러나 여전히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운수업·우편업 분야에서는 구인 수가 증가
- 기업의 구인 수, 구직자 수 모두 감소하였으나 기업들의 일손부족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인구감소까지 겹쳐 완전고용 상태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특히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무역수지 흑자 크게 확대

(총 합) 수출증가에 의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

- '18.3월 무역수지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확대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4,250억 엔 적자에서 911억엔 흑자로 반전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309억 엔에서 6,231억 엔으로 축소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1,881억 엔에서 2,466억 엔으로 증가

< 2018년 3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5	1.8	6.6	7.4	2.1	11.3	20.1	5.8
수 입	6.5	16.5	-7.1	6.6	-0.6	1.5	20.1	7.5
수 지	0.03	-99.6	-	0.8	32.1	2,566.7	0.0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8.3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8.3월 수출은 전월비 11.3% 증가한 7조 3,819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비 16.8% 증가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제조장치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
 - 원동기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28.3%로 가장 큼

< 2018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억 엔%)>

순위	품목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923	15.7	26.3	10,965	5.4	0.4	30,538	9.3
2	자동차부품	3,190	-1.0	14.8	3,639	0.4	14.1	9,607	1.7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92	-4.4	-3.4	3,463	4.3	15.7	9,551	1.9
4	철강	2,704	0.6	-1.6	3,037	-0.3	12.3	8,489	3.1
5	원동기	2,259	-4.7	10.4	2,898	10.8	28.3	7,203	7.0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 별 수출도 모든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

-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33.3%로 가장 크고,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됨

-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비 14.9% 증가

< 2018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억 엔, %) >

순위	국가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중국	10,802	-9.7	-6.9	14,396	10.8	33.3	36,798	8.8
2	미국	12,762	4.3	19.7	13,559	0.2	6.2	36,986	1.9
3	ASEAN	9,959	7.1	7.7	11,391	6.4	14.4	30,594	7.3
4	EU	7,809	11.5	8.9	8,034	0.3	2.9	23,017	9.7
5	한국	4,769	0.7	-0.3	5,479	-3.2	14.9	15,033	1.3
6	대만	3,674	-6.3	3.4	4,087	0.7	11.2	11,313	0.9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8.3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8.3월 수입은 전월비 1.5% 증가한 6조 5,845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3.5%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 대신에 의약품이 포함된 가운데, 원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감소폭이 전월비 -24.6%로 가장 큼

< 2018년 3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1	원유	6,597	2.5	-7.3	7,218	5.7	9.4	20,928	6.4
2	액화천연가스	4,275	18.8	2.7	4,134	12.1	-3.3	12,571	14.1
3	의류·동부속품	2,693	38.4	-0.1	2,268	-20.1	-15.8	8,657	11.1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93	-4.4	-3.3	2,256	-3.7	-24.6	7,677	14.3
5	의약품	2,609	20.1	0.3	2,239	-1.5	-14.2	7,449	13.7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3.6%로 가장 큼
 -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10.4%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4.3% 증가

< 2018년 3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8.2월			2018.3월			2018.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5,052	39.2	-13.4	13,485	-16.8	-10.4	45,924	2.0
2	ASEAN	10,381	17.3	-3.5	10,256	3.4	-1.2	31,395	10.1
3	EU	7,339	11.2	-10.3	8,193	11.7	11.6	23,714	13.7
4	미국	6,453	5.2	-10.0	7,328	0.6	13.6	20,951	4.6
5	호주	4,126	18.4	5.6	3,875	4.8	-6.1	11,907	10.6
7	한국	2,888	17.9	-5.0	3,013	12.8	4.3	8,939	14.1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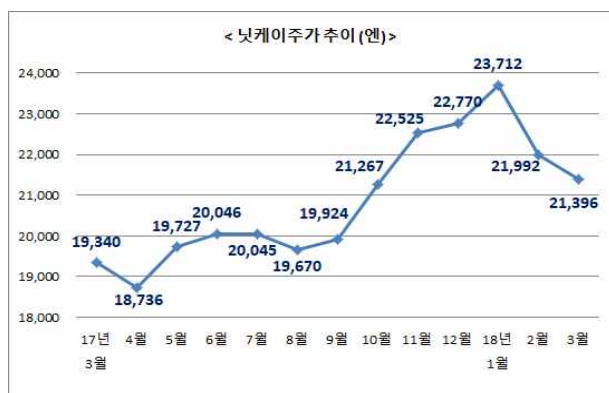
3.엔고 · 저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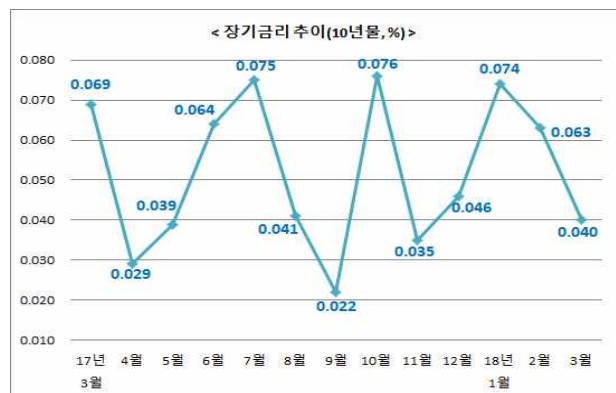
- ‘18.3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2.7% 하락한 21,396엔

□ (금 리)

- ‘18.3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36.5% 하락한 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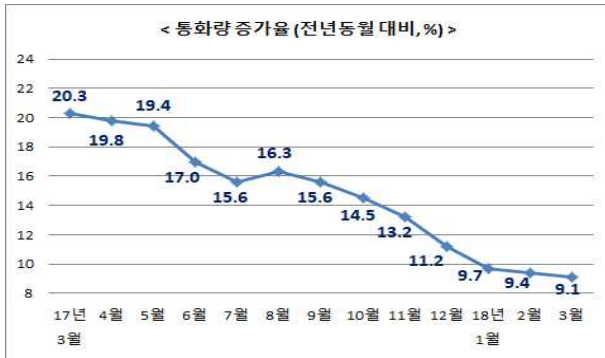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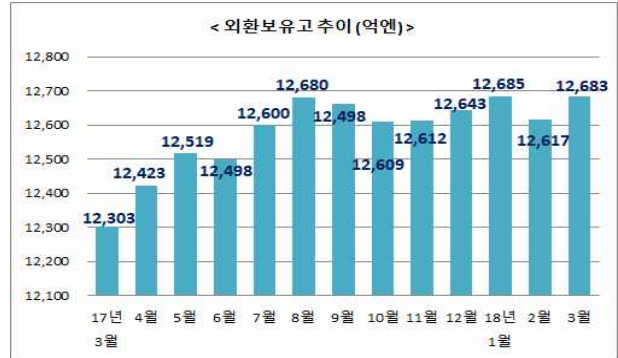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8.3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 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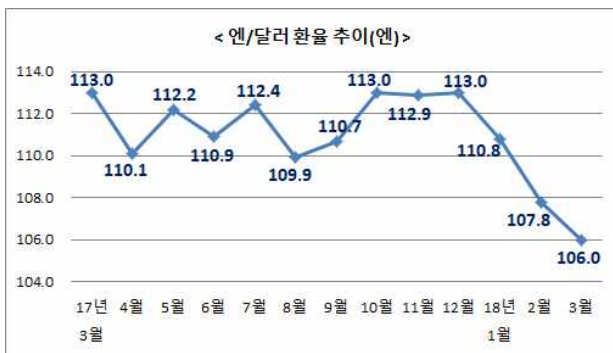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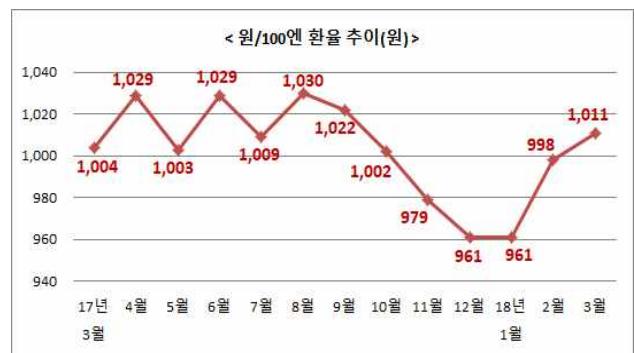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율)

- '18.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7% 상승한 106.0엔(엔고)
 - '18.4월 들어서는 106~107엔대로 엔고세가 주춤, 4월 23일 현재 107.8엔(엔저)
- 2018년 들어 엔화환율(대미달러)은 미국의 재정악화에 의한 나쁜 금리상승이나 일본 주가의 변동과 같은 리스크 회피 등이 주된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7년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확대에 의한 미국의 금리상승과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에 의한 미일금리차, 미일간 구매력평가 및 경상수지 변동 등이 엔·달러 환율의 주된 변동요인이었음
- '18.3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11원으로 전월의 998원에 비하여 1.3% 원저·엔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큰 폭 감소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급감이 전체 해외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킴

○ '18년 2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3,892억 엔으로 전월비 31.1%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7	2017			2018		
			3분기	4분기	12월	1월	2월	1-2월
금 액		559,108	114,871	131,519	58,290	49,161	33,892	83,053
증가율	전기비	35.0	9.2	-12.7	87.0	-15.7	-31.1	-
	전년 동기비	35.0	-38.4	-24.4	-18.0	10.6	-42.5	-20.3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월비 25.3% 감소

- 미국에 대한 투자는 3.5% 감소

○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각각 89.4%, 21.1%의 큰 폭 감소

○ 반면,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

- 한국에 대한 투자는 439억엔으로 전월비 54.0%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7		2017				2018		
	금액	증가율	3분기		4분기		2월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 세계	559,108	-18.0	114,871	9.2	131,519	-12.7	33,892	-31.1	83,053
아시아	78,541	-2.2	21,355	12.1	24,751	15.9	5,833	-21.1	13,222
중 국	14,769	12.9	3,417	-8.2	3,144	-8.0	1,161	-10.3	2,456
한 국	4,112	18.8	1,280	24.8	924	-27.8	439	54.0	724
북 미	179,972	-1.0	42,975	8.4	44,895	4.5	12,048	-2.0	24,344
미 국	174,770	-1.0	41,689	7.9	43,908	5.3	11,582	-3.5	23,583
중남미	25,249	-30.1	3,613	34.7	14,956	313.9	1,054	-89.4	10,979
유 럽	242,030	-33.9	42,980	7.0	40,552	-5.6	13,628	-25.3	31,873
대양주	9,592	-25.8	1,994	33.9	2,730	36.9	804	-7.2	1,670
중동	2,923	84.9	281	6.8	1,432	409.6	262	34.4	457
아프리카	5,398	-26.0	1,673	-9.5	2,201	31.6	262	6.5	508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

□ 아시아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인프라수출 확대책

- 일본정부는 해외에서의 발전시설 등의 인프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진출을 지원키로 함
 - 일본의 상사나 중전메이커들이 관여하고 있는 안전에 참여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함
 - 이는 참여 리스크를 경감하고 전력회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인프라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4월 10일 경협인프라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책을 결정하고 2018년 6월에 완성하는 미래투자전략에 담아 금년중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임

□ 상사에 대한 해외발전사업 제한 완화

-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상사가 국제협력은행(JBIC)나 일본무역보험(NEXI)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발전소 등을 건설·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 현재는 출자를 모집하여 권익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외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임
- 일본정부는 내규를 재검토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진출한 상사 등이 출자비율의 20%정도 수준까지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에서는 상사가 해외에서의 발전사업 등의 분야에서 선행하고 있음
 - 7개 종합상사는 해외에서 원자력발전소 40기분에 해당하는 4,000만kW에 약간 못 미치는 발전능력을 가지고 있음
 - 마루베니가 1,200 kW로 가장 많음

-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투자회수에 시간에 걸림
 - 전력회사 등에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면 투자회수가 빨라지고 성장이 예상되는 별도의 사업에 자금을 전용하기 쉬워져 투자의 선순환을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음
- 일본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상사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건 가운데, 지분의 일부 양도를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함

□ 전력회사의 해외전개 촉진

- 이제까지 일본 전력회사의 진출은 제한적이었음
 - 경제산업성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에온 등 유럽의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은 해외 매출액이 50%-70%인데 비하여, 일본기업은 J파워가 20%정도이나 전력·가스 관련 대기업들은 매우 적은 편임
 - 자금이나 진출 노하우 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의 각사들은 해외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국내의 전력수요는 인구감소로 부진할 전망이다
 - 전력소매의 자유화 영향으로 지역독점과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도 없어지는 등 수익환경이 어렵기 때문임
- 동경전력홀딩즈는 수익력강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기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자금 면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규 대규모안건에 관여하기는 어려움.
- 일부 권익의 양도가 인정되게 되면 해외전개를 하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있음

□ 발전에 필요한 원료조달에 대한 지원도 확대

- 일본정부는 전력서비스의 상위생산부문에 해당하는 연료조달에서도 지원을 확대키로 함
 -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일본으로 수송하는 경우나 산출국의 출하 시설 건설에 한하여, JBIC의 융자금리나 무역보험의 보험료를 낮게 억제하고 있었음
- 일본 이외의 소비국에서 일본기업이 떠맡는 LNG나 소비국의 수용시설 건설에까지도 확대할 예정임

- 미국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인프라투자액은 57.3조 달러임
- 이중 전력은 12.2달러에 이르며 16.6조달러의 도로에 다음가는 규모로 앞으로도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017년 10월 LNG시장 확대를 위해 관민으로 총액 1조엔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뜻을 표명한 바 있음
- 금융지원확충 등으로 미국산 셰일가스 유래의 LNG를 아시아시장에 유통시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함

□ 인프라 수출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에 대응

-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인프라수출의 수주액을 30조엔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함으로써 인프라정비를 지원할 방침임
- 인프라 수출분야에서도 타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수주에서 중국기업에게, 터키의 교량건설계획에서는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한바 있음
- 이에 일본으로서는 범정부나 인재육성을 포함한 일괄지원으로 수주경쟁에 대응, 안전성이나 환경에의 영향도 배려할 방침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폭 확대

□ (중 합)

- '18.3월 대일무역적자는 2,587백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확대
- 큰 폭의 대입수입 증가가 적자확대 주된 원인임
- '18.3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5%에서 5.1%로 하락한 한편,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8%에서 11.6%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1%를 유지

< 2018년 3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479	21.2	-4.2	2,626	9.6	5.9	7,670	16.7
대일 수입	4,480	0.3	0.3	5,213	1.1	16.4	14,202	6.1
무역 수지	-2,001	-17.4	6.5	-2,587	-6.3	29.3	-6,531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출)

- '18. 3월 대일수출은 2,626백만 달러로 전월비 전월의 4.2% 감소에서 5.9% 증가로 반전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출증가율 15.6%에는 크게 못미침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8.2월	21.2	-4.2	3.9	-1.8	16.5	-7.1
2018.3월	9.6	5.9	6.1	15.6	-0.6	1.5
2018.1-3월	16.7	-	10.1	-	7.5	-

- 전월과 비교하여, 금속광물 대신에 전자기기가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됨
-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대일수출 증가폭이 37.1%로 가장 큼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 감소폭이 -27.1%로 가장 큼

< 2018년 3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479	221.	-4.2	2,626	9.6	5.9	7,670	16.7
1	광물성연료	480	114.0	0.2	350	48.3	-27.1	1,306	70.6
2	철강제품	330	8.8	-7.3	343	2.2	3.9	1,027	8.7
3	석유화학제품	156	25.9	2.0	182	18.8	16.7	491	40.8
4	전자부품	124	-7.8	-20.0	170	18.4	37.1	448	6.5
5	정밀화학제품	178	61.9	23.6	168	35.6	-5.6	491	23.3
6	산업용전자제품	122	-6.8	-15.3	166	19.6	36.1	431	15.4
7	수송기계	132	22.0	20.0	114	-47.6	-13.6	356	-21.8
8	농산물	81	1.6	-12.0	97	2.5	19.8	270	6.2
9	기계요소공구·금형	78	-10.8	-24.3	92	-2.0	17.9	269	1.9
10	전자기기	63	1.7	-11.3	84	1.2	33.3	217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8.3월 대일수입은 5,213백만 달러로 전월비 16.4%의 큰폭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7.5%를 크게 상회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8.2월	0.3	0.3	14.9	-8.9
2018.3월	1.1	16.4	5.2	7.5
2018.1-3월	6.1	-	13.5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에는 산업기계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증가

- 기초산업기계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26.3%로 가장 큼

< 2018년 3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2018.2월			2018.3월			2018.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총 계	4,480	0.3	0.3	5,213	1.1	16.4	14,202	6.1
1	정밀기계	703	11.9	5.6	855	1.4	21.6	2,266	11.4
2	철강제품	538	6.9	-0.7	653	19.2	21.4	1,733	15.1
3	전자부품	488	0.9	-15.4	606	-1.0	24.2	1,670	4.5
4	정밀화학제품	371	1.2	-2.4	408	16.0	9.9	1,159	15.2
5	석유화학제품	342	-16.0	-7.8	355	-24.0	3.8	1,070	-12.2
6	산업용전자제품	259	6.9	9.3	307	7.5	18.5	803	12.0
7	수송기계	235	18.5	43.3	291	39.7	23.8	690	15.4
8	기초산업기계	217	-12.9	-10.0	274	-17.7	26.3	733	-7.7
9	산업기계	171	-6.7	26.7	205	-3.2	19.9	511	-1.7
10	플라스틱제품	176	-5.9	2.9	196	-0.7	11.4	543	-2.9

2. 1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 (동 향) '18.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급증

○ '18.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68백만 달러로 전기비 135.9%의 큰 폭 증가

- 건수 면에서는 전기비 8.0% 증가, 이는 건당 투자규모가 매우 컸음을 시사

- 반면,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47.3%의 큰 폭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6		2017		2017.3분기		2017.4분기		2018.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299 (-5.1)	1,246 (-25.2)	328 (18.3)	1,862 (90.1)	79 (-19.4)	867 (110.4)	87 (10.1)	156 (-82.0)	94 (8.0)	368 (135.9)
전체 외국인투자	2,987 (10.7)	21,299 (1.9)	2,774 (-10.1)	22,970 (7.8)	640 (-2.3)	3,991 (-30.5)	846 (32.2)	9,361 (134.6)	669 (-21.0)	4,934 (-47.3)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일본 호도가야화학공업(주)과 계열사인 에스에프씨(주),(주)렉셀이 충북 외국인투자 지역에 5년간 3천 6백만 달러를 투자기로 함(2018.3.23 충북넷)
- 일본 호도가야화학공업(주)는 1916년 설립하여 일본 최초로 가성소다 제조를 시작으로 최첨단 OLED발광재료 등 정밀화학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100년 전통의 화학전문기업임
- 모바일 게임사 넷툰이 일본의 게임사 SNK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 (2018.3.29.디지털타임스)
- SNK사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을 만든 일본의 게임사로서 앞으로 한국의 유망 게임 업체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요인과 사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8.3월~2018.4월)

□ 국내 기관

- 『일본 정부의 부업·겸업 허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4월 21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31869>
- 『최근 일본의 임금인상 동향 및 주요 이슈』 한국은행, 2018년 4월 1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4184&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4월 7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30984>
- 『최근의 일본 경제금융 동향』 한국은행, 2018년 4월 6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3925&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기업 성과 개선 지속되나』 엘지경제연구원, 2018년 2월 1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n/LGERI_Report_20180201_20182001132030315.pdf
- 『일본의 對韓투자 전략 분석과 정책과제 - 한국진출 일본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7년 12월 12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8&ord=0&pageNo=3&state=view&tab=list&idx=54008

□ 일본 기관

- 『2018년판 중소기업백서』 중소기업청, 2018년 4월 21일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30/PDF/h30_pdf_mokujityuu.htm
- 『사업재편의 효율화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8년 4월 21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023.pdf
- 『대일직접투자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산업성, 2018년 4월 14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016.pdf
- 『제 47회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경제산업성, 2018년 4월 6일
<http://www.meti.go.jp/press/2018/04/20180405001/20180405001.html>
- 『일본의 장기 에너지생산성 : 품질과 산업구조 요인』 일본정책투자은행, 2018년 4월 4일
http://www.dbj.jp/ricf/pdf/research/DBJ_RCGW_DP61.pdf
- 『아베노믹스 5년간의 검증과 일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서경제동우회, 2018년 4월 4일
https://www.kansaidoyukai.or.jp/wp-content/uploads/2018/04/180403_Maintext.pdf
- 『일본 스포츠산업의 경제규모 추계』 일본정책투자은행, 2018년 4월 3일
http://www.dbj.jp/ja/topics/region/industry/files/0000030022_file2.pdf
- 『일본의 중소기업부문 효율성』 경제산업연구소, 2018년 3월 31일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dp/17e123.pdf>
- 『한미 FTA재교섭에 비추어 본 미일 FTA 가능성』 NRI Financial Solutions, 2018년 3월 30일
<http://fis.nri.co.jp/ja-JP/knowledge/commentary/2018/20180329.html>